

프랑스 포도주의 명가에서 생산된 고급 와인 라벨을 주목하다 보면

생산자의 이름을 자주 보는 세계 3대의 고급 포도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주 개로 확장시켜 10명 이상의 유산으로 물려준라 할 수 있다. 퀴르통을 물려받은 자녀 중 특이하게도 포도주 사색을 담은 부티크 호텔을 오픈했다.

포도주 생산자이자 판매업에 와인빛을 담은 멋진 호텔이었던 브리짓은 기계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멋진 호텔을 기획해 나간 색과 가구들로 장식하고 아티스트들의 오리지널 작품을 로비와 살롱에 걸어두었다. 사람들이 호텔을 찾았을 때 멋진 별장에 와 있는 듯한 인상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가정집 같은 분위기를 남겨두고 인간의 시야를 괴롭히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적인 요소의 오브제들을 갖추었다.

라 메종 보르도에는 여섯 개의 서로 다

각각 이름 붙여진 여섯 개의 방은 다른 컨셉트의 디자인과 색상 배치로 방에 들어서는 아늑에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Special Interview: Trip to Delightful BOOK IN BOOK TIME TO GO Trend Report: Holiday Destination



# LA MAISON BORD'EAUX

와이너리가 펼쳐진 보르도 그리고 그 안에서 즐기는 퀴르통 와인의 깊은 맛. 부티크 호텔 라 메종 보르도(La Maison Bord'eaux)에서 와인빛 여행을 즐긴다.

Address : 113, rue Dr. Albert Barraud  
33000 Bordeaux / France  
Website : www.lamaisonbord-eaux.com  
E-Mail : contact@lamaisonbord-eaux.com

른 방들이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클라리스, 장, 셀리아, 멜라니, 디에그, 아폴리... 현재 동반자의 아이들 2명, 자신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4명의 이름을 각각 따서 방 이름을 지었는데, 각 여섯 개의 방은 다른 컨셉트와 색상 배치로 방에 들어서는 아늑하게 즐거움을 한층 더한다. 이미 프랑스의 여러 디자인 잡지와 여행 잡지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이곳은 예약을 기본으로 하며, 어쩌면 한가롭게 주말을 즐기러 오는 모니카 벨루치 같은 영화배우들과 이웃처럼 편안히 마주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메종 보르도에는 이곳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세계적인 상표의 퀴르통 와인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좋은



포도주의 맛을 인식할 줄 아는 간단한 설명도 제공된다.

아름다운 보르도, 그리고 그 안에서 와인 빛의 감동을 한껏 느끼게 하는 호텔 메종 보르도, 햇빛 가득한 테라스에 앉아 와인 한잔의 매력에 빠져보자.



에디터/고나영 글·사진/지은경(프리 투신원)